

##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가현<sup>†</sup>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4년 6월 17일 접수: 2024년 8월 20일 수정: 2024년 8월 22일 채택)

###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and Self-Esteem on Problem-Solving Ability of Adult Learners Nursing Students

Ga-Hyun Kim<sup>†</sup>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of Health  
(Received June 17, 2024; Revised August 20, 2024; Accepted August 22, 2024)*

**요약** : 본 연구는 만 25세 이상인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학업스트레스( $r=-.319, p<.001$ )와 부적상관관계, 자아존중감( $r=.533, p<.001$ )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아존중감( $\beta=.48, p<.001$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성인학습자 비중이 높아짐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과교육 및 비교과 교육과정 방향의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제어** :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self-esteem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of adult learners who are 25 years of age or older. A structural surveys was conducted on 180 nursing college students of adult learners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consented to participat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18.0 softwar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blem-solving ability of the subjec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 $r=-.319, p<.001$ )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 $r=.533, p<.001$ ). The primary factors influencing problem-solving ability were found to be self-esteem ( $\beta=.48, p<.001$ ). Therefore, to enhance problem-solving abilities among adult nursing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ghkim@duh.ac.kr)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counseling and educational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self-esteem. Considering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adult learners in universities, policies and systems for customized curricular education and extra-curricular curriculum for not only school-age learners but also adult learners are required.

*Keywords : Adult Learners, Nursing students, Academic stress, Self-esteem, Problem-solving*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평생학습시대에 따른 직무 역량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성인학습자의 교육적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1].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2항12호)에 근거한 성인학습자(만학도) 인정기준은 만 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위기로 지방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 모집을 위한 만학도 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입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학에서의 성인학습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는 2021학년도에는 2019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성인학습자는 7,327명으로 36.8% 증가하였으며, 만 19세 이하는 43,432명으로 29.5% 감소하였다[3]. 이에 따라 대학과 기업체에서는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교육체제에 맞춰 다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4].

의료기술 발전으로 간호사에게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간호와 더불어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고 있다[5].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해결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6]. 간호사의 문제해결능력은 복잡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다[7, 8].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수행 업무를 잘 할 수 있기에[5]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중요하며 다양한 임상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로 자신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가를 의미한다[9].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높기에 일상생활에서도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10], 문제해결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었으며[12],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학생들의 시험 불안을 매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였다[13].

간호대학생들은 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인 중압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과 많은 학습량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향후 성적이 취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에 학업 성취에 따른 민감성이 타 학과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나타났다[14]. 학업스트레스는 학교 공부나 성적과 관련되어 겪게 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15] 간호대학생의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문제 상황에 직면 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저하[16]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문제 및 학업 부담감은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17].

간호학과는 4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 전문지식 및 간호 실무 역량을 갖추는 간호사 양성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가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간호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인학습자는 늘어나고 있다. 간호학과 성인학습자 적응 경험 연구[18]에 따르면 성인학습자는 학습, 암기력, 교우관계 등 대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19, 20] 또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21, 11]와 같이 관련 요인을 따로 보고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지를 함께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규명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정도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도 지역의 대학교 1개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만 25세 이상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26일까지 구조화된 구글 설문 서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가 설문 링크를 클릭하면 연구 설명서에 설문 참여 도중 참여를 중단할 수 싶으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에 클릭한 후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비동의 클릭 시 비동의에 클릭하면 설문은 진행되지 않도록 설정하였으며,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181명의 연구대상자의 응답 중 1명의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180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Schaufeli[22] 등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 도구를, Shin과 Gye[23]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5문항은 정서 소진, 4문항은 냉소주의, 6문항은 효능감 감소로 구성되었다. 이 중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 Schaufeli[22] 등과 Shin과 Gye[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2.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9]가 개발한 문항을 Jon[24]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변안하고 Lee [25] 등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고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5문항은 긍정적 문항, 5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Rosenberg[9]와 Jon[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2.2.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26] 등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문제명료화 5문항, 원인분석 10문항, 대안 개발 10문항, 계획과 실행 10문항, 수행평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 2.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검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Duncan's test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문제해

결능력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학생 145명(80.6%), 남학생 35명(19.4%)이었고, 연령은 25-29세 63명(35.0%), 30세 이상 117명(64.43%)이었으며, 연령 평균은 39세였다. 학년은 1학년이 49명(27.2%), 2학년이 55명(30.6%), 3학년이 39명(21.7%), 4학년이 37명(20.5%)이었

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106명(5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100명(55.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상태는 '보통'이 90명(50.0%),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중'이 121명(67.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 3.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 해결능력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2.01 \pm 0.55$ 점,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3.72 \pm 0.74$ 점, 문제해결능력 평균 점수는  $3.42 \pm 0.57$ 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0)

Characteristic	Categories	N(%)
Gender	Male	35(19.4)
	Female	145(80.6)
Age	25-29	63(35.0)
	≥30	117(64.3)
Grade	1st	49(27.2)
	2nd	55(30.6)
	3rd	39(21.7)
	4th	37(20.5)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68(37.8)
	Moderate	106(58.9)
	Unsatisfied	6(3.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0(55.6)
	Moderate	80(44.4)
	Unsatisfied	0(0)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77(42.8)
	Moderate	90(50.0)
	Poor	13(7.2)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36(20.0)
	Average	121(67.2)
	Low	23(12.6)

Table 2. Mean score of consciousness of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problem-solving ability. (N=180)

Variables	Mean ± SD	Min-Max
Academic stress	$2.01 \pm 0.55$	1.00-3.60
Self-esteem	$3.72 \pm 0.74$	1.00-5.00
Problem-solving ability	$3.42 \pm 0.57$	1.51-4.96

Table 3. Differences of problem-solv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0)

Category		Problem-solving ability	
		M±SD	t/F(p)
Gender	Male	3.48±0.62	0.668 (.505)
	Female	3.41±0.56	
Age	25-29	3.30±0.47	-2.306 (.022)
	≥30	3.49±0.61	
Grade	1st	3.54±0.48	1018 (.386)
	2nd	3.40±0.47	
	3rd	3.36±0.67	
	4th	3.36±0.70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sup>b</sup>	3.57±0.61	5.297 (.006)
	Moderate <sup>a</sup>	3.31±0.51	
	Unsatisfied <sup>b</sup>	3.67±0.7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52±0.57	2.736 (.007)
	Moderate	3.29±0.56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3.50±0.60	1.938 (.147)
	Moderate	3.38±0.47	
	Poor	3.20±0.93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sup>b</sup>	3.66±0.62	5.020 (.008)
	Average <sup>a</sup>	3.39±0.52	
	Low <sup>a</sup>	3.21±0.65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onsciousness of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problem-solving ability. (N=180)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Academic stress	1		
Self-esteem	-.385(.000)**	1	
Problem-solving ability	-.319(.000)**	.533(.000)**	1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은 연령( $F=-2.306, p<.05$ ), 대학 생활 만족도( $F=5.297, p<.05$ ), 전공 만족도( $F=2.736, p<.05$ ), 주관적 학업성취도( $F=5.020,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 3.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r=-.385, p<.001$ )은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문제해결능력( $r=-.319, p<.001$ )은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 $r=.533, p<.001$ )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 3.5.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종속변수로,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연령,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 변인을 통제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Durbin-Watson 값은 1.837, 공차 한계는 0.1이상, 분산팽창인자 VIF 값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에서는 주관적 학업성취도( $\beta = -.18$ ,  $p = .017$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설명력은 9%이었다.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연령( $\beta = .16$ ,  $p = .012$ ), 자아존중감( $\beta = .48$ ,  $p = .000$ )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3%로 모형1에 비해 2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 3.6. 고찰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3.42 \pm 0.57$ 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Lee[27]의 3.78점 Kim[28]의 3.5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Lee와 Hwang[18]의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는 학습어려움, 교우관계 어려움 등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며 간호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문제해결 능력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5] 이에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령기 학습자와 성인학습자를 분류해서 대상자에 맞는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교과 교육뿐 만 아니라 비교과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대학생활 적응에서도 만족도를 높여 나아가 긍정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to problem-solving ability. (N=180)

	Variables	Problem-solving ability				
		B	S.E	$\beta$	t	p
Model 1	(constant)	3.81	.24		15.65	
	Age	.15	.09	.13	1.764	.079
	College life satisfaction	-.06	.09	-.06	-.68	.499
	Major satisfaction	-.13	.10	-.12	-1.32	.189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18	.08	-.18	-2.41	.017
F=4.53, $p = .002$ , Adj.R <sup>2</sup> = .09						
Model 2	(constant)	2.	.3		6.12	
	Age	.19	.08	.16	2.55	.012
	College life satisfaction	-.04	.08	-.04	-.53	.598
	Major satisfaction	.07	.09	.06	.71	.479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08	.07	-.08	-1.22	.225
	Academic stress	-.13	.08	-.12	-1.53	.127
	Self-esteem	.36	.05	.48	7.08	.000
F=14.47, $p < .001$ , Adj.R <sup>2</sup> = .33, R <sup>2</sup> change = .24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차이는 연령, 대학 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연령에서는 30세 이상인 그룹이 25-29세 그룹보다 문제해결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없어 따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같은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20대의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과 3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연령이 많다고 하여 문제해결능력이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 시 성인학습자라고 해서 만 25세 이상 모두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성인학습자에서도 연령 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학령기 학습자(20-24세)에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며[29], 선행연구[30]에 따르면 성인학습자(25세 이상)에 대한 정책과 운영방안 모색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성인학습자는 학령기 학습자보다 내면적 욕구는 높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긴장하고 회피하는 성향이 높으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기에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및 제도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9].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는 '만족', '불만족'하는 그룹이 '보통'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11]와는 일치되지 않은 연구로 추후 확인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생활 적응은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기본요소라 제안되고 있기에[31] 향후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시 대학 생활 만족도에 따른 그룹 별 특성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학 생활 적응 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영향을 미치므로[32] 프로그램 적용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서는 '만족'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33, 34]와 일치하였다. 이에 전공 만족도가 낮은 그룹을 대상으로 먼저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전공 만족도를 높인 후에 전공 수업과 연계하여 문제해결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hoi[35]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단기간 획득되는 학습이 아니므로 내적 동기에 근거한 교수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과과정 및 다양한 교과 외 비교과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향후 간호 실무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상'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36, 37]와 일치하였다. 문제해결능력과 학습 태도 및 자기 주도 학습 준비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38, 39] 이에 따라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이 전공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r=-.385, p<.001$ )은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문제해결능력( $r=-.319, p<.001$ )은 통계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으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저하[41]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저하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42].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높이고 학업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 및 교육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성인학습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Park[43]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는 학업에 대한 공백기가 있기에 학습도움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에 프로그램 개설 시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업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 $r=.533, p<.001$ )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문제해결능력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1,44]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정면으로 맞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이는 선행연구[11, 21]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을 성공적인 존재로 인식하기에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11]. 따라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4년의 간호학 전공 교육과정에서 학년 별 단계적인 교육과정 및 대학 생활 정도를 모두 고려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교육에서 간호사의 문제해결능력은 전문적 역량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오랫동안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45].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향후 다양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간호 현장에서 간호업무수행을 할 때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이 필요로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은 학교 교육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의 교육방식이 아닌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피드백을 주는 학습활동을 간호 교육 과정과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이 증가하는 간호 교육 환경에서 성인학습자를 관리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성인학습자 내에서도 연령 그룹을 나누어 대상자에 맞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문제해결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간호학과에 유입되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고,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는데 연구적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일개 지역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기에 다양한 지역의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정적이어서 향후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여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 특성에 관련하여 비교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 결론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사가 되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과교육 및 비교과 교육과정 방향의 정책과 제도가 대학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또한 성인학습자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Strateg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innovation support in Universities.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4467&lev=0&searchType=null&statusY>. (2021).

2. J. Y. Park,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cademic Resilience, Self-Esteem on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Students"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Vol.14, No.3 pp. 47-75, (2012).
3.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An-nouncement of the main points of the 「2023 College admission implementation plan」.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kcce.or.kr/web/board/1485.do?mode=view&schBcode=&schCon=0&schStr=2023%ED%95%99%EB%85%84%EB%8F%84%20%EC%A0%84%EB%AC%B8%EB%8C%80%ED%95%99%20%EC%9E%85%ED%95%99%EC%A0%84%ED%98%95%20%EC%8B%9C%ED%96%89%EA%B3%84%ED%9A%8D&pageIndex=1&pageUnit=20&idx=53512>. (2021).
4. S. J. Han, "A Study on Teaching-Learning Strategy Based on Action Learning for the Capability Enhancement of Adult Learn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0 pp. 289-303, (2018).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10.63>
5. S. Y. Kwak, Y. S. Kim, K. J. Lee, M. Y. Kim, "Influence of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nursing performance ability among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2 pp. 146-155, (2017).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2.146>
6. P. P. Heppner, C. J. Krauskopf, "An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to personal problem solv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15, pp. 371-447, (1987).
7. N. Çinar, C. Sözeri, S. ahin, R. Cevahir, M. Say, "Problem solving skills of the nursing and midwifery students and influential factors" *Revista Eletrônica de Enfermagem*, Vol.12, No.4 pp. 601-606, (2010).
8. A. B. Çevik, N. Olgun, "Do problem-solving skills affect success in nursing process applications? An application among turkish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Knowledge*, Vol.26, No.2 pp. 90-95, (2015). <https://doi.org/10.1111/2047-3095.12043>
9.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0. Y. S. Jeon, "A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analytic group art therapy on self-esteem of disadvantag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2014).
11. K. I. Jung, E. S. A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on problem solving abili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1 pp. 775-788, (2019).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11.070>
12. K. L. Hyu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Stress among Piano Major College Students", *Research in Music Pedagogy*, Vol.22, No.1 pp. 245-263, (2021).
13. S. H. Kim, M. J. Baek,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of Test Anxiety and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4, No.3 pp. 327-346, (2019). <http://dx.doi.org/10.21097/ksw.2019.08.14.3.327>
14. M. H. Oh, S. M. Cheon, "Analysis of Academic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t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15, pp. 63-95, (1994).
15. S. H. Shin,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Depres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1 pp.

- 14-24, (2016). <http://doi.org/10.5977/jkasne.2016.22.1.14>
16. S. H. Hong, J. S. Kim, D. B. Ju, "Th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9 pp. 443-450, (2020).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443>
  17. S. K. Choi,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20, No.4 pp. 807-815, (2019). <http://dx.doi.org/10.9728/dcs.2019.20.4.807>
  18. J. A. Lee, J. G. Hwa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est-major congruence, academic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and major adjustment wi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3, No.2 pp. 107-121, (2012).
  19. E. K. Byun, M. Y. Kim, "Effects of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1 pp. 167-174, (2022). <https://doi.org/10.17703/JCCT.2022.8.1.167>
  20. J. W. Yang,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6, No.8 pp. 319-326, (2022).
  21. Y. H. Hwang, S. J. Park, "The effects of empathy and self concept on problem solv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4 pp. 348-356, (2020).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48>
  22.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A. 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3, No.5 pp. 464-481, (2002). <https://doi.org/10.1177/0022022102033005003>
  23. D. W. Shin, S. Y. Gye, "Effects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of Children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7, No.1 pp. 3-22, (2012).
  24.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11, No.1 pp. 107-130, (1974).
  25. J. Y. Lee, S. K. Nam, M. K. Lee, J. H. Lee, S. M. Le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1, No.1 pp. 173-189, (2009).
  26.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27. Y. J. Lee, "Learning Satisfaction and Problem Solving Cap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Taking Onli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22).
  28. Y. J. Kim, "Influence of Self-Esteem, Perception of Communication Importance, Communication Self-Confidence, Problem Solving Skill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6, No.7 pp. 237-249, (2022).
  29. Y. M. Jeon, Y. H. Lee, "The Difference in College Life Adjustment between Traditional Students and Adult Learners According to their Problem-solving Competence, Self-esteem, and Intrinsic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21, No.1 (2024).
  30. J. H. Kim, H. S. Lee, "Analysis and

- Implications of Organizational Diagnosis on Lifelong Learning Universities”,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Vol.10, No.2 pp. 24–29, (2015).
31. E. Grant–Vallone, K. Reid, C. Umali, E. Pohlert,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student support services on students’ adjustment and commi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Vol.5, No.3 pp. 255–274, (2004). <https://doi.org/10.2190/C0T7–YX50–F71V–00CW>
  32. S. O. Kim,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Life Stres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9, No.3 pp. 423–432, (2022). <https://doi.org/10.12925/jkocs.2022.39.3.423>
  33. E. Y. Yeom,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ademic Stress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 pp. 209–220, (2019). <http://dx.doi.org/10.21742/ajmahs.2019.01.22>
  34. J. H. Kim, K. J. Kwon, S. H. Le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4 pp. 295–307, (20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4.295>
  35. J. H. Choi,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local cities: Focu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5 pp. 2473–2485, (2011).
  36. J. S. Min,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19).
  37. S. M. Ahn, K. H. Kim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 555–565,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1.555>
  38. R. Z. Luo, X. H. Zhang, C. M. Zhang, Y. H. Liu,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learning attitude on problem–solving ability among Chines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Frontiers of Nursing*, Vol.6, No.2 pp. 143–150, (2019). <https://doi.org/10.2478/FON–2019–0021>
  39. H. S. Ryu, J. Y. Kim,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9, No.1 pp. 42–51, (2022). <http://dx.doi.org/10.12925/10.12925/jkocs.2022.39.1.42>
  40. Y. O. Chung, G. B. Shim, M. S. Lee, C. H. Nam, “Factors affecting the Self–esteem and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16, No.3 pp. 65–78, (2015).
  41. E. H. Kim,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5 pp. 498–505, (2016). <https://doi.org/10.5762/KAIS.2016.17.5.498>
  42. M. H. Lee, M. S. Park,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2 pp. 863–872,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12.863>
  43. J. I. Park, “Analyzing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Adult Learners in Lifelong Education College for Extra–curricular Program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4, No.3 pp. 3491–

- 3510, (2023).
44. N. S. Ha, M.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1, No.1 pp. 13-21, (2005).
45. S. Tümkaya, B. Aybek, H. Aldağ, "An investigation of university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erceived problem solving skills",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6, pp. 57-74, (2009).